

■ ‘뜨거운 감자’ 과학벨트 어떻게 돼가나

상반기 입지평가 결과만 우선 발표

위원회 7일 첫 가동... 본격 선정 작업

‘호남·영남·충청 분산배치’ 공감대 확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기반과 최적의 관련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기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프로젝트가 드디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선다. 호남권과 영남권,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자는 ‘내륙 삼각벨트 조성’을 촉구하고 나선 광주시도 발걸음이 빨라졌다.

리핀 과학벨트특별법에 따르면, 입지 선정을 포함해 과학벨트의 기본계획은 전적으로 과학벨트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과학벨트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교과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개발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차관 6명과 민간 전문가 1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로는 대학교수, 연구개발(R&D) 관련 기관장 등이 참여한다.

하 분과위원회로는 ‘입지평가 위원회’와 ‘기초과학연구원 위원회’가 설치되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안팎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기초과학연구원 위원회에서는 과학벨트의 핵심 콘텐츠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운영 방안이 논의된다. 정치권과 지역간 참여해 갈등으로 관심의 초점인 과학벨트 입지의 경우 입지평가 위원회가 결정한다. 입지 평가에 앞서 구체적 선정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지만, 부지가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은 과학벨트법에 이미 제시돼있다.

▲국내외의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의 용이성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정성 등이다. 입지 선정은 하반기 전체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상반기 중으로 입지 평가 결과만 우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처럼 과학벨트 입지선정이 가시화되자 휴일인 3일에도 서울과학기술회관과 과전 국토해양부 청사를 방문, 중앙부처와 과학계 인사들을 만나 ‘내륙 삼각벨트 조성’의 당위성과 광주의 유치여건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강 시장은 “과학벨트를 광주와 대전, 대구에 분산배치하자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영남권과 정치권에서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며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도 과학벨트는 내륙 삼각벨트 배치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삼각벨트’ 급부상...김영진의원에 듣는다

“국가균형발전 우선 獨·日도 분산배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의 백지화 후폭풍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분산 배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서구 을)으로부터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

▲독일과 일본의 과학벨트 입지 선정 고려 1순위는 국가균형발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R&D 기반 집중도와 지반 및 재해 안전성 등이 고려됐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13곳의 분원이 만들어졌는데 11곳이 구 동독지역이었다. 일본도 이화학연구소도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분산 배치된 상황이다.



‘세계적 석학과 과학기술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다. 과학벨트의 분산 배치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독립된 연구소장 등의 직위를 준다면 세계적 석학 등의 유치가 도울 수 있다. 더구나 과학벨트가 3개 지역으로 분산된다 하더라도 모두 2시간 거리 내에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에 문제가 없다.

확보 등을 놓고 경쟁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캠프(1000조 분의 1m) 수준의 극미세한 원자 세계를 관찰하는 중이온 가속기 설치의 지질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 지진 등에 가장 안전하다. -영호남 여야 의원 50명이 과학벨트 분산배치 건의문에 서명했는데, ▲오는 5일 영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주무장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낼 생각이다. 또한, 서명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적잖은 시기에 국무총리, 교과부 장관 등을 만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내일부터 여수엑스포 참가국 회의

여수엑스포 참가국 회의가 5일부터 3일간 서울 신라호텔과 여수 현지에서 열린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제2차 참가국 회의에는 로

제2차 참가국 회의에는 로 세르탈레스 BIE(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과 100여개 참가국, 6개 국제기구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반 회의에서는 여수엑스포 준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에 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5일에는 환영 리셉션, 6~7일에는 여수엑스포 현장 시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대학원 062)605-1114

상무관 등 옛 도청일대 건물 리모델링 공사 착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옛 전남도청 일대 보존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가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단장 이병훈)은 3일 옛 전남도청을 비롯해 문화전당 일대에 보존키로 한 건물들의 리모델링공사를 위해 이날 초 이틀 건물 외부에 비계를 설치하고, 중순부터는 내부마감재를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공사는 1930년대에 지어져 낡고 훼손이 심한 옛 전남도청 및 민원실, 전남경찰청 및 회의실, 상무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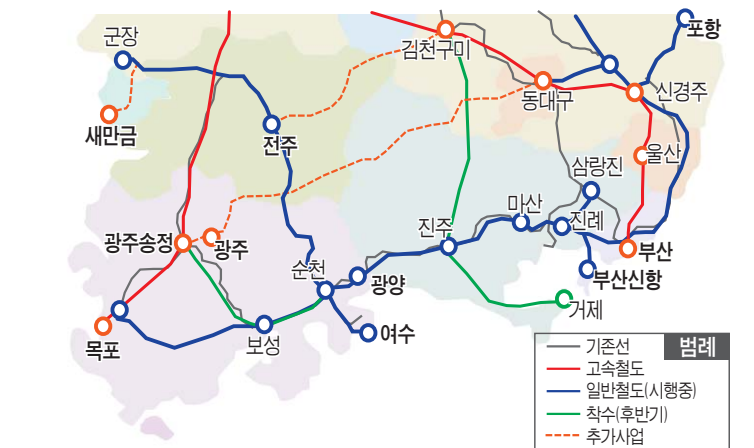
옛 전남도청과 민원실, 전남경찰청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근에 보존될 건물들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가 본격화된다.사진은 옛 전남도청 본관. /L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친 뒤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2012년 초부터는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국 거미줄망화...고속철 시대 서울~광주 1시간 11분 주파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정부가 3일 확정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전 국토를 2020년까지 거미줄 망처럼 촘촘히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진행중인 사업을 포함해 고속철도 3개 구간과 일반철도 58개 구간, 광역철도 18개 구간 등으로 구성된 계획사업이다.



◇주요거점 고속 KTX 연결 = 호남·경부·수도권 고속철도의 X자형과 서해선·동해선·경춘선·경전선·춘천~속초선의 □자형을 결합한 국가철도망이 완성돼 인구의 83%가 전국 주요거점을 90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 마산~마산신항, 사곡~구미산단, 함덕~아산산단 등 9개 노선 615km 구간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착공된다.

대전과 대구의 도심구간과 광주~오송 구간이 2014년까지 완공되고,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에 공사가 끝난다. 이렇게 되면 광주~서울 운행시간은 현재 2시간 52분에서 1시간 11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대전·대구 도심구간과 수서~평택 구간이 완공되면 서울~부산은 1시간 43분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호남고속철 ‘저속철’ 우려 현실화 = 하지만 KTX 광주~목포 구간에 대해 기존노선을 고속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저속철’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철도 58개 구간의 경우 기존선 250km까지 고속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KTX 서비스 지역이 확대된다. 광주송정~순천, 김천~진주, 진주~거제, 논산~청주공항, 조치원~봉양, 능곡~의

지급까지 용역안으로만 검토되던 기존노선 고속화 방안이 정부의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공식 포함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설로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하지는 전남도의 요구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신 기존 함평역에서 무안공항과 연결되는 지선을 건설해 공항과 KTX를 연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노선의 열차역

주민들이 너도나도 KTX 정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신설노선도 아니면서 완공일정은 2017년 이 그대요 유지된 점 등에 대해서는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TX화물열차 2단계제출로 전국 당일배송 = 산업단지외 물류 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 물류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여수울산산단과 동해항, 마산신항, 구미산단, 아산산단으로 이어지는 5개 철도사업이 새로 추진하고 관양양, 울산신항, 포항영일신항, 공장산단 철도 등 기존 4개 사업을 적기에 완공하기로 했다.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기존 경부선과 호남선을 주요 화물 발생 거점과 연계한 화물 중심 노선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홍행기기자redplane@kwangju.co.kr

Genestory advertisement for genetic testing. Title: '진스토리 암 유전자검사로 암 공포에서 해방되세요!'. Text describes how genetic testing can identify cancer risks early and provide personalized prevention strategies.

IBAN advertisement for the 15th financial statement. Title: '제15기 결산 공고'. Includes a detailed table of financial data for 2010, categorized by department and item, with total assets and liabilities of 381,346,235,925.